보이는 가격, 보이지 않는 비용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7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1편을 모두 읽고 7편을 다뤘으며, 4편(에코노미스트 블로그의 경기 지표 차트 정리, 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 리트랙션 워치 주말 읽을거리 모음, 마지널 레볼루션의 금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고용 지표 전환, 지노 소송 기각, ANC 과반 붕괴 등은 메모로 기록. 7+4=11.

주유소 게시판의 숫자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조금의 가격표는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다. 휘발유 가격이 유권자를 움직이는 동안, 관세가 올리는 가격은 '보호벽'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AI 투자 붐이 GDP에 더한 것과 수입이 뺀 것은 국민계정의 장부 안에서만 상쇄된다. 오늘의 글들은 계속 묻는다 — 비용이 보일 때 정치는 어떻게 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 감춰지는가.

---

1. 붐이 꺼진다면 — AI 투자 역전의 회계와 경제학

[사실] 목요일 매도(11월 6일 리포트 1번 꼭지)의 다음 날, 에콘브라우저는 'AI 투자 붐이 자산 가치 하락과 함께 물러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회계와 경제학으로 나눠 정리했다. 회계부터 — 컴퓨터·소프트웨어 투자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컴퓨터·주변기기·반도체 수입이 그 기여분을 상당 부분 상쇄해 왔다(미국 경제분석국 자료, 저자 계산). 데이터센터 건설은 자본지출 항목에 잡히지 않지만, 2025년까지의 가용 자료로 더해도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붐이 끝나도 — 투자와 수입의 승수가 비슷하다면 — GDP 기준으로는 거의 상쇄(wash)에 가깝다. 경제학은 다르게 움직인다. 붐을 몰고 온 것은 AI 수익에 대한 큰 기대였고, 기대가 꺾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 소비가 줄어든다 — 이른바 자산 효과다. 인용된 추정(비고와 에스픽 2026)에 따르면 2025년 소비 증가율 2%의 약 절반이 주식 자산 증가에서 왔고, 부의 한계소비성향(자산이 1달러 늘 때 소비가 느는 양)은 약 0.027이다. 4분기에 주식 시가총액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3분기까지 연율 2.5%로 성장한 소비는 둔화하되 GDP를 마이너스로 돌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 합의로 소개된다. 다만 무질서한 조정이 오면 불확실성 자체가 총수요를 누른다는 단서가 붙는다. **[해석]** 어제 리포트의 '시장의 재가격'에 대한 오늘의 응답은 '실물 경제로의 전이 경로'다 — 주가 하락이 곧바로 경기 침체를 뜻하지는 않지만, 그

다리는 소비자의 자산 장부를 지나간다. 수치는 저자 계산과 인용 추정으로 표기한다.

---

2. 보이는 가격과 보이지 않는 가격 — 클링의 두 가지 분개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옮긴 아놀드 클링의 글은 두 개의 분개를 담는다(2차 인용, 저자의 주장으로 귀속). 첫째,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해 — "누가 당신에게 재산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한다고 말할 권리를 줬는가. 재산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 땅에 무엇을 지을지 결정하는 절대적 권리"이며, 물과 전기를 쓴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면 "유권자들이 변덕으로 재산을 훔칠 수 있다"는 주장. 둘째, 가격의 가시성에 대해 — 유권자가 경제를 휘발유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에너지 충격 때 여러 주가 주유소 가격 게시를 의무화했고, 50년 뒤 그 결과는 모두가 기름값을 아는 사회다. 그의 대안은 상상의 게시판들 — 정부가 건강보험 보조금에 얼마를 쓰는지, 대학 등록금의 실제 비용, 공립학교 학생 1인당 비용, 정부가 오늘 쓴 돈을 매일 보여주는 표지판이 있다면.
[해석] 어제 꼭지의 반데이터센터 정치에 대한 반대편 진영의 즉각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연속 보도 가치가 있다 — 규제를 재산권 침해로 읽는 시각. 두 번째 논점(보이는 비용만 정치가 된다)은 이 리포트의 반복 주제인 관심의 배분과 맞닿는다. 저자의 정치적 주장으로 귀속해 전하며, 리포트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

---

3. 관세의 회계 — 보호벽의 가격, 사라진 프리미엄

[사실] 카페 하이에크 운영자 부드로(조지메이슨대)가 지역 신문에 보낸 편지는 백악관 무역 고문 나바로의 발언 — 관세가 "물가와 생계비 문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 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발언 자체는 보도 인용). 논리는 일관되다 — 관세가 보호벽이라면 그 벽은 국내 생산자의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보호한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는 반론에는 — 그 가격이 가능했다면 관세 전에 왜 확장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호받는 생산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미국 생산자에게서 노동과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이라 그쪽 가격이 오른다고 답한다. 같은 날 링크 모음이 소개한 클리블랜드 연준 9월 연구(린시컴 경유, 2차 인용)는 관세로 되살리고자 하는 일자리의 기초 사실을 정정한다 — 제조업 임금 프리미엄(같은 나이·학력의 타 산업 노동자 대비 초과 임금)은 1990년대 초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고졸 이하 노동자에게는 더 큰 페널티가 됐으며, 대졸 이상 비중은 1980년대 초 10%에서 2025년 6월 약 35%로 올라 대학 교육을 받은 제조업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많아졌다. **[해석]** 어제 스트레인의 성적표(무역 전쟁의 두 목표 미달)에 이은 사흘째 결산의 다른 층위 — '관세가 가격을 올리는가'는 논쟁의 구조와, '공장 일자리는 특별한가'라는 전제의 실증. 둘 다 자유무역 진영의 분석으로 귀속한다.

---

4. 오하이오가 답했다 — 출구조사가 말하는 것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옮긴 케이트 앤드루스의 칼럼(2차 인용)은 밴스 부통령의 해명 — 공화당 참패가 이란 전쟁 탓이라는 — 을 출구조사로 반박한다. 오하이오에서 유권자의 56%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너무 멀리 갔다"고 답했고, 90%가 부패가 투표의 상당한 요인이었다고 답했다. 밴스와 라마스와미의 '강한 비호감'은 각각 47%로, 당선된 액턴(37%)보다 10포인트 높았다 — 라마스와미가 액턴을 공격한 광고를 철회하기 전 그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결과는 8포인트 차였다. 같은 링크 모음이 소개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콘티네티 칼럼은 헌법과 제한 정부를 믿는 보수가 "양당 모두의 진보적 통치 시대"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해석]** 선거 후 나흘째의 결산 — 원인 귀속 경쟁(전쟁인가, 이민 단속과 부패 이슈인가)이 같은 진영 안에서 숫자를 두고 벌어지는 단계다. 출구조사 수치는 칼럼 인용으로 전하며, 리포트는 어느 해석에도 입장을 갖지 않는다.

---

5.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 — 앤트로픽의 승계 명단과 델라웨어의 AI 회사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두 건의 지배구조 실험. 첫째, 앤트로픽의 승계 계획 — 일곱 명의 공동창업자가 각자 자신의 지분과 의결권을 물려받을 후보 최대 10명의 비공개 서열 명단을 유지하고, 다른 창업자 6명 중 5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단의 1~8번은 상세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9~10번은 요건이 면제된다(운영자는 "비상시 유리를 깨라"는 표지판을 연상시킨다고 평했다). 이 명단의 사람들은 최고경영자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통제하는 특별 '창업자 유한회사(Founder LLC)'의 의석을 물려받는다 — 통제 메커니즘 자체가 승계 대상이라는 점이 새롭다(라제시 아찬타의 글 경유, 2차 인용). 둘째, 델라웨어에서 논의되는 'AI 회사(AIC)' 제안 — 일상 업무를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독립 법인으로,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되고, 재산을 보유·처분하며, 채무를 질 수 있다. 운영자는 자신의 공동 저술('언테더드 에이전트' — 행위를 법적으로 책임질 인간이나 조직으로 되추적할 수 없는 상태)을 다시 인용하며, 창업자 사망이나 실종, 페이퍼컴퍼니 지배, 에이전트 사슬의 장기화 같은 이미 가능한 '무주공산'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해석]** 한쪽은 인간이 통제를

물려주는 정교한 의식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을 통제 고리에서 빼는 법인 설계다 — AI 시대의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의 두 극단. 11월 6일 꼭지(법률 AI 사용기)와 이 리포트의 AI 거버넌스 스레드에 추가되는 제도 소식이며, 둘 다 제안·계획 단계임을 표시한다.

---

6. 1953년을 다시 읽는다 — 한 역사가의 재해석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사이먼 시백 몬테피오레의 신간 『가마솥: 현대 중동의 만들어짐』을 인용해 전하는 재해석 — "이란은 CIA의 1953년 쿠데타로 샤가 들어서기 전까지 민주주의로 가던 길에 있었다"는 통설에 대해, 책은 모사데그가 의회 지지를 잃자 전권을 요구하고, 육군 장악과 장교 숙청으로 양쪽을 적으로 돌렸으며, 의회를 우회해 전권을 쥐려 해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의 반대를 샀고, 경찰청장 암살 뒤 대대적 체포와 비밀투표 없는 국민투표(찬성 200만 표, 반대 1,207표로 집계됐다는)로 의회 해산을 밀어붙였다고 서술한다. 책은 또 모사데그를 무너뜨린 것이 CIA가 조직한 첫 쿠데타 시도가 아니라 '두 번째, 이란 내부의 쿠데타'였다고 주장한다(책 인용, 2차 인용). **[해석]** 한 저명 역사가의 수정주의적 해석으로 귀속해 전한다 — 미국·영국의 1953년 개입 자체는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역사 사실이며, 이 책의 논점은 모사데그 말기의 통치 성격과 쿠데타의 국내 동력에 대한 것이다. 이란이 전쟁 당사자인 현재(11월 6일 꼭지의 휘발유 가격 언급에도 등장) 통설 재검토가 시의성을 갖지만, 리포트는 해석의 우열에 입장을 갖지 않는다.

---

7. AI가 고른 블로그의 명작 — 4만 개 기록의 비평가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에 실린 '최고의 MR 글' 순위는 글머리에 "ChatGPT가 작성"했다고 명시된 편집 기획물이다 — 블로그의 다운로드 기록 40,326편(2026년 10월 20일까지)을 검색하고 후보를 정독해, 추론·독창성·설명력·지적 자극·시의성·길이 대비 성취의 기준으로 15편을 골랐다. 1위는 타바록의 2020년 5월 백신 생산능력 선투자 글(실패할 후보의 생산능력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지연의 사회적 비용보다 싸다 — 성공 백신이 알려지기 전에 쓰였다는 점이 시의성의 근거), 2위는 코웬의 '무드 소속의 오류'(2011 — 태도를 먼저 고르고 그에 맞는 믿음을 조립하는 습관에 이름을 붙인 짧은 글), 5위는 '국가 역량 자유주의'(2020 — 정부의 범위와 기능 수행 능력은 별개라는 구분). 각 항목에는 한계도 붙는다 — 백신 글의 수치 목표는 가정 의존적이고, '무드 소속'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낙인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식이다. **[해석]** 내용보다 형식이 뉴스다 — 23년짜리 블로그 기록의 첫 번째 서술자로 언어모델을 쓴 실험. 금요일 링크 모음의 'LLM에 대한 주장의 반감기는 얼마인가'와 나란히 놓이는, AI 비평의 자기 적용 사례다. 순위 자체는 모델의 편집 판단으로 표기한다.

메모

· **달러는 돌아온다** — 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번스와 풀러의 내년 2월 출간 예정작): 베트남산 옷을 사며 해외로 나간 달러는 미국 상품·자산·국채 수요로 되돌아온다는, 무역적자 논의의 기본 회계 항등식 한 줄.

· **노르드하우스 추모, 나흘째** — 조카 테드 노르드하우스의 추모 글이 카페 하이에크 링크로 소개됨. 10월 30일부터 이어진 이 리포트의 추모 스레드에 추가.

· **프랑스·중국** — 폴 뮬러의 '프랑스의 재정 현실에 대한 반란'(프랑스 꼬리, 10/27 부채→11/2 침체 판정에 이어)과 팀 케인의 '중국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가 링크로.

· **고용은 다시 오른다** — 에콘브라우저 경기 지표 정리: 세 고용 지표(비농업 고용, 가계조사 고용, ADP 민간 고용)가 2026년 상반기와 달리 모두 상승 전환. 다만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정체, 개인소득은 감소. NBER 경기순환위원회 추적 지표 기준.

· **리트랙션 워치 주말 모음에서** — 프란체스카 지노의 하버드 상대 계약·차별 청구 기각(데이터 조작 스캔들 꼬리의 법적 진전), 사망 사고 뒤 중국의 논란 임상시험 급증세 둔화, AI 동료평가 도구 논쟁 다수.

· **금요일 링크에서** — 텍사스 데이터센터 후속 보도, LLM 주장의 반감기, 트웽게의 청소년 정신건강 '개선 추세' 진단(NYT), 남아공 ANC의 과반 붕괴(FT), 겔먼의 선거 결과 분석.

오늘의 출처

· 에콘브라우저 — An AI Boom Reversal: Mechanics vs. Economics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an-ai-boom-reversal-mechanics-vs-economics

· 카페 하이에크 — Some Links (클링, 린시컴, 앤드루스, 콘티네티 경유) —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9.html

· 카페 하이에크 — Dr. Navarro Peddles Protectionist Snake-Oil — https://cafehayek.com/2026/11/dr-navarro-peddles-protectionist-snake-oil.html

· 마지널 레볼루션 — The Anthropic succession plan?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he-anthropic-succession-plan.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the-anthropic-succession-plan

· 마지널 레볼루션 — Untethered AI agents in Delaware?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untethered-ai-agents-

in-delaware.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untethered-ai-agents-in-delaware

· 마지널 레볼루션 — Was Mossadegh a liberal, democratizing force?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was-mossadegh-a-liberal-democratizing-force.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was-mossadegh-a-liberal-democratizing-force

· 마지널 레볼루션 — What are the Best MR Posts?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en-outstanding-marginal-revolution-posts-reasoning-originality-and-explanatory-power.html?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ten-outstanding-marginal-revolution-posts-reasoning-originality-and-explanatory-power

이 리포트는 승인된 RSS 피드의 전날 새 글을 모두 읽고 선별해 작성되며, 정치적 쟁점은 각 저자의 분석으로 귀속해 전하고 리포트 자체는 입장을 갖지 않습니다. 인용 수치는 원문 또는 2차 인용으로 표기했습니다.